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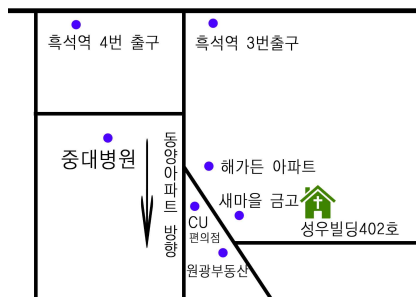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주일 오전 11:0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저녁기도회	월-목요일 저녁 8: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0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1: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청 소 년 부	오후 1:00 마리아회 오후 1: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1:00
	*월삭새벽예배 6:00		에스더회 오후 1:00
셀 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파 송 선 교 사	강성규 (러시아)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선 교 사	양 병 순 (카자흐스탄)
			전임전도사 권 인 혁		이 금 주 (미국)
			협력전도사 오 호 남	국 내 선 교 사	오 인 숙
장	로	유 신 웅 (집사장)			
		김 대 희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박 희 태		(2호) 세종 선한교회	
		조 윤 익		신원섭 목사	
		한 배 선			

선한교회 사무실 오시는 방법



버스 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3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80 서울 동작구 서달로8가길 9 성우빌딩 402호 (흑석동 95-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 5:16)

Walk By The Spirit

실 천 사 항 선교사의 삶 제자삼기(1인) 성경강론(1장)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암 송 구 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24)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67장 (통일찬송가 31장)	
교	독 문	교독문 19번(시편 32편)	
찬	양 과 경 배	288장 (통일찬송가 204장)	
예	배 기 도	조운익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씀 봉 독	갈라디아서 2장 15~21절	
설	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임춘배 담임목사)	
헌	금 드 림	이태수 이호재 정영기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주를 위한 이곳에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예배장소 : 교회 사무실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말	씀 봉 독	희년 (레위기 25장)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1. 인 테 리 어 팀 모 임	일시 : 6월 14일(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 교회 신축 현장	
2. 성 경 암 송 대 회	일시 : 6월 25일 주일 범위 : 2017년 성경암송구절 프린트 앞면 방법 : 작년과 동일하게 시험 형식	
3. 떡 제 공	김진만, 오준옥 전도사 가정 (김시연 둘)	
4. 매 일 성 경 강 론	매일 저녁 8시 성경 강론과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보에 성경 강론을 위한 참고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사용과 참여를 바랍니다. (월~금 주5일)	
5. 정 오 기 도 회	매일 점심(12시30분)에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문을 이용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체크하고 계시는 "기도문 읽기표"를 입당예배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 배 준 비 안 내 및 정 리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고 청소 및 정리는 2시 30분 부터입니다. 오늘은 상도셀 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분당셀 입니다. (정리 후에는 식당문을 잘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헌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025101-04-158561 예금주: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교회 입금 후 확인은 재정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석 집사 : 010-4333-6242)						
2017년 성경강론 6월 둘째주 범위						
6/12	6/13	6/14	6/15	6/16	6/17	6/18
	레위기 23장	레위기 24장	레위기 25장	레위기 26장	레위기 27장	
※매일 저녁 기도회 : 월~목 저녁 8시(교회 사무실), 금요일 8시 30분(서울남부교회 4층)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 담임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	---

가정예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송 :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479장(통 290)

본문 : 창세기 45장 4~8절

말씀 :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형들의 마음이 기뻐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아마 후자였을 것입니다. 지난날 요셉에게 한 행동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가 드러났을 때, 숨겨놓았던 일들이 발각됐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지만 형들의 경우는 핑계를 댈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너무나 뻔히 드러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5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7~8절)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요셉은 이 모든 역사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합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바로는 요셉 가족의 정착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요셉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장례식에 가 보면 많은 조문객이 함께 애도하고 슬퍼하는 상가도 있지만, 썰렁한 상가도 있습니다. ‘왜 우리 장례식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정을 보면 ‘누구나 다 아는데 왜 본인은 모를까’라면서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많은 물질을 함께 돌려 보냅니다. 아버지에게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과 곡식, 떡과 양식을, 형제들에게 옷 한 벌씩을,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줍니다.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받은 것이 미약합니다. 베냐민에게 준 것에 비하면 너무 적습니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조금 전만 해도 생사의 문제를 고민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마음에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요셉은 여기까지 관여합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24절)

물질은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만들고 욕심은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고후 12:9) 이미 받은 은혜가 큼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은혜의 말씀

제목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2:15-21)

서론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중심이며 복음의 진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 복음의 진수
- (1)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16)
 - (2)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16)
 - (3)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20).

본론

2. 교훈
- (1)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알라(고전 1:23,24).
 - (2)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라.
 - (3)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

결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조운익 장로	김대희 장로
헌 금 위 원	이태수 이호재 정영기	김계모 김명옥 김혜숙
안 내	상도셀	분당셀

매일 성경 강독		안식일과 절기	날짜 : 6월 12
찬양 통독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통일 찬송가 495장) 레위기 23장		
본문 내용	옛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첫째달 14일 저녁은 유월절로, 그달 15일은 무교절로 지킨다. 가나안에서 곡물을 수확할 때(초실절)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되,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먹어서는 안된다. 초실절을 지킨 이후 50일째 되는 날(칠칠절)에는 새 소재를 하나님께 드린다. 더불어 정해진 규례를 따라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곡물을 벨 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며 남겨 두어야 한다. 일곱째 달 1일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며 나팔절로 지킨다. 일곱째 달 10일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일이다. 이날은 스스로 고백하게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들 절기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일을 지켜야 한다. 일곱째 달 15일은 초막절로 7일간 지킨다. 첫날과 여덟째 날은 성회로 모이며 안식한다. 나무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나무를 취해 초막을 짓고 7일간 초막에 거한다. 이는 애굽 땅에서 나와 초막에 거하던 때를 기억하게 한다.		
생각해보기			
1	여호와와 절기들 (1) 여호와와 절기를 성회로 삼아 민족적 종교 집회로 모이도록 함 (2) 안식일과 7대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3) 절기는 과거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념하고 현재 언약 백성으로서의 생활을 반성할 기회를 제공하며 미래에 예수님의 구원사건과 모든 세대에 이어질 신약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다.		
2	절기의 영적 교훈 (1)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라. (2)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송축하라. (3)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라(히10:25).		
핵심 단어	23:6 여호와와 무교절이니(하그 함맛초트 라이호와): 본문에서 ‘절이니’ 로 번역되었으며 ‘축제일’이란 뜻을 가진 명사 ‘하그’는 ‘축하다’ 혹은 ‘긴 여행을 하다’, ‘순례 길을 떠나다’란 뜻의 동사 ‘하가그’에서 파생하였다. 이 단어가 사용된 절기는 본절의 ‘무교절’과 ‘초막절’과 ‘칠칠절’ 뿐이다. 이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이 절기들의 축제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즉 이 절기들은 모두 기쁨의 축제였으며 더불어 순례의 축제였다. 즉 후대에 이 절기들은 언제나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 성소에서 지켜져야 했으며 따라서 그 절기에 참여해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지방에 있던 외국에 거주하던 언제나 순례 길을 떠나야 했다. 한편 ‘무교’라고 번역된 ‘맛초트’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란 뜻의 ‘맛차’의 복수형이다. 이처럼 복수형이 쓰인 것은 이 절기가 하루로 끝나지 않고 칠 일 간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교절에 대해서도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속한’이란 뜻의 ‘라이호와’가 붙어 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해서이다. 즉 출애굽 때에 여호와와 구원을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였던 행동 중에 하나였던 무교병 먹는 일을 재현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와 전적인 은혜로 일어난 여호와와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이 자신에게 속하였다고 말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단지 무교병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무교병이 상징하는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더욱이 그 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며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주신 것이다. 후대에는 유월절이 무교절과 동일한 기간으로 묘사되었으며, 유월절과 무교절이 동일하게 무교절로 불려지기도 했다. 이는 이스라엘인들이 지키던 많은 절기 가운데서 두 절기에만 ‘여호와께 속한’이란 말이 붙어 있으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두 절기가 동일하게 여호와와 전적인 구원 역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주님 귀에 들려 드린 대로”
찬양과 기도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통 489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어느 청년이 호두나무 밑에 누워 낮잠을 청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지혜가 참 부족하셔. 기왕이면 이 나무에 달린 호도열매를 수박덩이만 큼 크게 만드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호도 한 개만 가져도 그 고소한 맛을 마음껏 즐기고 실컷 먹을 수 있을 것 아닌가? 이 청년은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스르르 잠이 들어 버렸다. 얼마 후 갑자기 머리 위에 무엇이 떨어졌는데 꽤나 아팠는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금방 떨어진 듯한 호도 한 개가 옆에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바람이 부는 바람에 호도 한 개가 떨어지면서 청년의 이마를 때린 것이었다. 이마를 만져 보니 조그마한 혹이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제서야 청년은 아까 자기가 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만약에 수박만 한 호도가 자기 머리 위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을 의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의심할 때가 있다. 즉 오늘 내게 주신 형편에 대하여 불평하고 더 나은 것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앙의 마음이다. ‘지금, 여기의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신 줄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언어생활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언어를 익혀야 합니다.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평소 언어 습관을 돌아 보십시오. 여러분은 감사의 언어와 불평의 언어 중 무엇을 더 많이 사용하나요?	
말씀 나누기	민수기 14:26~38	
묵상포인트	불평의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불신했기에 육신의 안목에 속아서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 냅니다. 그에 따른 징계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백성은 불신앙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귀에 습관적으로 무엇을 들려 드리는지 살피고, 습관적인 불평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고, 신뢰할 수 없을 때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유아들은 어떻게 되나요?(31절)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담당할 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적용하기	불평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나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기도하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불평을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겸손히 제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서원	날짜 : 6월 16일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통일 찬송가 492장)		
통독	레위기 27장		
본문 내용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했다면 정한 규례대로 그 값을 드려야 한다. 그가 가난해 감당할 수 없으면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해준다. 가축을 서원물로 드리는 경우 변경할 수 없으며, 집을 서원물로 드리는 경우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한다. 밭을 드리기로 서원했다면 마지막 수대로 값을 정한다. 다시 밭을 무르고자 하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 제사장에게 지불해야 한다. 서원한 밭을 판 경우에는 다시 무르지 못하고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회년에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 가축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자기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밭이든지 팔 수 없고 무를 수 없다. 땅의 곡식이나 열매의 십일조 혹은 소나 양의 십일조는 하나님의 성물로 구별해야 한다.		
생각해보기			
1	이스라엘 백성의 헌금법 (1) 사람, 가축, 집과 밭, 처음난 초태생에 관한 서원법 (2) 십일조는 여호와와 것이다(30). (3)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무르지 못함(28,29) (4)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청지기의 자세를 갖고 모든 것을 성실하게 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함이 마땅하다.		
핵심 단어	27:32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 마다(콜 아쉐르 야아보르 타하트 핫 쇠베트 하아시리): '통과하는' 으로 번역된 '야아보르' 의 원형인 '아바르' 는 '지나가다' 란 뜻이다. 이 단어는 정렬하여 지나가는 개념이 없고 되는 대로 지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나 양의 십일조를 드리는 데에는 특별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는 등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일이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막대기' 로 번역된 '쇠베트' 는 '지팡이' 로도 번역되는 단어로서 목자들이 양을 치기 위하여 늘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가리킨다. 동물의 경우에 십일조에 해당되는 동물을 가려낼 때 바로 이러한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하여서, 특별한 구분 없이 그 중 열 번째로 지나가는 것마다 구별하여 십일조로 드리도록 하였다. 이처럼 하나님께 십일조로 바치는 짐승을 구별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지시하신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십일조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등잔불, 떡상, 신성모독	날짜 : 6월 13일
찬양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가 510장/통일 찬송가 276장)		
통독	레위기 24장		
본문 내용	아론은 감람을 찢어 낸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이 항상 켜 있도록 간수해야 한다. 또한 고운 가루로 떡 열두 개를 구워 안식일마다 상 위에 여섯 개씩 진설해야 한다. 지극히 거룩한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여호와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며,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한다.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각해보기			
1	등잔과 진설병 규례 (1) 등잔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정리하라. (2) 상위에 12개의 떡을 진설하고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라. (3) 우리 속에 성령의 불과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고 뜨겁게 타오르도록 해야 한다.		
2	불경죄와 상해죄에 관한 규례 (1)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슬로밋의 아들에 대한 처벌 (2)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동해보복법). (3)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 22:37,39)		
핵심 단어	24:2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쉐멘 자이트 자크 카티트 람마오르): ‘순결한’ 이라고 번역된 ‘자크’ 는 ‘쉐멘 자이트’ 즉 ‘감람 나무의 기름’ 의 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단 한마디의 단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크’ 는 ‘깨끗한’ 이란 뜻 뿐만 아니라 ‘밝은’, ‘빛나는’ 이란 뜻을 지니는 ‘자카크’ 에서 파생한 형용사이다. 따라서 ‘순결한’ 이란 표현 가운데에는 ‘빛나는’ 이란 뉘앙스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은 순결한 기름으로 고결하게 타오르는 등잔불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갖게 한다. 또한 ‘찢어 낸’ 으로 번역된 ‘카티트’ 는 그 기름이 어떠한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를 보여 준다. 즉 ‘카티트’ 는 ‘부수어 뺀다’ 란 뜻의 ‘카타트’ 에서 파생한 형용사이다. 이는 동물을 제물로 삼기 위해 각을 뜨는 모습과 비교된다. 각을 뜨는 것에 대한 원어 성경의 표현은 ‘닛타흐 리느타헤하’ 즉 ‘조각조각 그 예물을 자르다’ 이다. 이는 아무렇게나 대강대강 자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세심하게 자르는 모습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람 열매를 부수어 빵을 때에도 마구잡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큰 정성을 기울여야 했다. 이러한 공정을 거쳐 마련된 순결한 기름의 궁극적인 용도를 알려 주는 표현은 ‘켜기 위하여’ 로 번역된 ‘람마오르’ 이다. ‘빛’ 이란 뜻의 ‘마오르’ 는 ‘타오르다’ 는 뜻이 있는 ‘오르’ 에서 파생한 명사로서 ‘등불’ 이란 뜻이다. 여기에 ‘~을 위하여’ 란 뜻의 전치사 ‘레’ 가 결합된 ‘람마오르’ 는 ‘불을 위하여’ 란 뜻이다. 이처럼 원어 성경은 본질의 모든 규정이 ‘불을 위하여’ 에 집중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히년	날짜 : 6월 14일
찬양 통독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통일 찬송가 415장) 레위기 25장		
본문 내용	6년 동안 경작하고 일곱째 해인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해야 한다. 안식년에 저절로 자란 수확물은 사회적 약자들과 들짐승까지 먹을 수 있다. 50년째 해인 히년에는 자유를 공포하고 각각 자기의 소유지와 가족에게로 돌려보낸다. 이웃에게 소유를 매매할 때는 히년 이후의 연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정직하게 값을 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여섯째 해에 복을 주어 3년 동안 쓸 풍족한 소출을 거두게 하겠다고 약속하신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영구히 팔 수 없다. 가난한 형제가 기업을 판 경우 가까운 친족이 무를 수 있다. 성벽 있는 가옥은 1년이 지나면 영구히 무를 수 없고, 성벽 없는 가옥은 히년이 되면 돌려주어야 한다. 가난한 형제가 있다면 그를 도와 이자를 받지 말고 함께 생활하게 해야 한다. 그의 몸을 샀다면 엄하게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함께 있게 해 히년까지 성직하게 한다.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는 영원히 종을 삼을 수 있다. 가난한 동족 형제가 부유한 거류민이나 동거인에게 팔리면 가족이나 친척이 그를 속량해야 한다. 이때 몸을 팔린 해로부터 히년까지 연수를 따라 계산해 그 값을 정한다. 만약 속량되지 못하면 히년이 되어야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자유롭게 된다.		
생각해보기			
1	안식년의 규례 (1)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7년째부터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함 (2) 안식년에는 개간하거나 파종해서는 안 되며 저절로 난 곡물과 열매라도 거두어서는 안됨 (3) 안식년은 땅의 지력을 회복함과 동시에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위함		
2	히년의 규례 (1) 안식년이 7회 반복되는 그 다음해 속죄일(7월10일)에 나팔을 불으로써 안식과 구원의 히년을 선포함 (2) 히년에는 잃은 기업이 회복되고, 종 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죄수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빚진 자들의 부채는 탕감되고, 땅은 안식을 누리고, 그 땅의 모든 소산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소유가 됨 (3) 이 땅에 대한 탐욕을 억제하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4) 히년선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과 구원에 대한 복음의 기쁜 선포를 상징한다.		
핵심 단어	25:10 이 해는 너희에게 히년이니(요벨 히 티호에 라캤): ‘히년’으로 번역된 ‘요벨’은 그 어원이나 의미를 쉽게 밝힐 수 없는 단어이다.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서에 근거하여 ‘양각’이라고 번역된 ‘하요벨림’을 본문의 ‘요벨’과 동일어근인 것으로 보아 본문의 ‘요벨’도 ‘양의 뿔’이란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히년이 나팔을 크게 부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제 9절의 내용과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 9절에서 이미 ‘양의 뿔’이라는 뜻의 ‘쇼파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동일한 의미를 굳이 ‘요벨’이라는 다른 단어로 표기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레위기에 쓰인 ‘요벨’은 여호수아서의 문맥에서 쓰인 ‘요벨’과 전혀 상관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레위기의 ‘요벨’은 그 내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처소로 회복될 수 있는 해’라는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고유 명사라는 것이다. 이처럼 ‘요벨’의 정확한 어근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번역본들은 히브리어 ‘요벨’의 음을 그대로 빌려 와서 표기했음을 볼 수 있다. 영어 성경은 ‘요벨’의 음을 따서 ‘히년’을 ‘쥬빌리(Jubilee)’로 표기했으며 독일어 성경도 역시 ‘유벨야르’, 즉 ‘요벨의 해’로 표기했다. 그러나 이 어원을 기초로 하여 ‘환희’, ‘경축’의 뜻을 내포하는 영어 단어들이 파생하였고, 한글 성경은 파생된 의미에 기초하여 이를 ‘히년’ 즉 ‘좋은 해’란 의미로 번역하였다. 즉 한글 성경의 번역은 ‘요벨’의 어원적인 의미보다는 ‘요벨’의 해가 지니는 자유의 기쁨을 반영하는 신학적 번역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평화로운 삶	날짜 : 6월 15일
찬양 통독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통일 찬송가 377장) 레위기 26장		
본문 내용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안전하게 거하며,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산다. 또한 하나님이 원수를 쫓으시고, 백성을 창대하게 하시며, 언약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을 당한다, 병 들며, 파종한 것을 대적이 먹고 미워하는 자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그래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7 배나 더 징벌하시므로 백성은 산물을 얻을 수 없으며, 결국 대적의 손에 포로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당하고 청종하지 않으면 자녀의 살을 먹는 비극에 이른다.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소가 황량해지며, 그들은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다. 원수들의 쥘에서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며, 결국 죄로 인해 멸망하고 만다. 백성이 죄로 인해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때 가나안 땅은 안식을 누린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언약을 기억하신다.		
생각해보기			
1	순종과 불순종 (1)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축복 (2)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 (3)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열매를 받기를 선택해야 한다.		
2	경고와 약속 (1)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여 죄를 범한 자는 자기 최악의 형벌을 받는다(43). (2)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는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44,45). (3)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사보다 상한 심령이므로(시51:17)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 자세를 갖도록 하자.		
핵심 단어	26:3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임 빠혹코타이 텔레쿠 웨이트 미츠오타이 티쉬메루 와아시템 오탐): 본절 부터 제 13절까지는 율법을 지키는 데에 따르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말해 준다. 반대로 제 14절에서 45절까지는 율법을 거역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나온다. 이처럼 보통 율법에 대한 기술을 마친 후에는 일련의 복과 저주가 바로 이어 나열되는 것이 성경의 일정한 패턴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불순종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한글 성경의 본문에는 ‘준행하면’이라는 한 개의 동사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온다. 그것은 ‘텔레쿠’, ‘티쉬메루’, ‘아시템’인데 ‘텔레쿠’는 ‘걷다’는 뜻의 ‘할라크’의, ‘티쉬메루’는 ‘지키다’는 뜻의 ‘와마르’의, ‘아시템’은 ‘행하다’는 뜻의 ‘아사’의 2인칭 복수형이다. 따라서 본문을 원어의 의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만약 너희들이 나의 규례 안에서 걷고 나의 명령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이다. 여기에서 먼저 ‘나의 규례 안에서 걷는다’는 표현은 레위기에 주어진 율법이 추상적인 계율이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매우 실제적인 계율임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추상적이거나 탈생활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체적인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다. 또한 ‘지키고…행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실천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짓된 이방의 사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함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처럼 말씀에 따라 행할 것을 먼저 언급하신 것은 결국 모든 축복과 은혜가 말씀에 대한 준수에서 나오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준수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